

축산악취 제로화 나선다

익산시, 6개 사업 · 13억원 투입... 환경친화도시 조성

익산시는 다양한 축산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해 쾌적한 환경과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

시는 축산악취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6개 사업 1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는 자동안개분무 시설, 바이오커팅(필터), 분뇨처리시설 밀폐 등의 악취저감시설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등이다.

우선 시는 농가의 악취 저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8억7,500여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악취저감제 131톤을 336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악취 저감이 가능한 살포용 악취저감제에 한해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월평균 약 27톤을 무상으로 공급해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급되는 미생물제는 뛰어난 탈취효과로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농가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축산냄새 중점 관리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냄새 저감 컨설팅을 실시

해 농가의 악취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컨설팅은 축산악취 전문가인(재) 녹색농업축산환경기술원(대표 장원경)이 참여해 농가별로 2~3회 실시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악취저감시설, 돈사 내 슬러리피트 등의 관리·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된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축산악취가 가장 심해지는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한 안전점검 및 봉사활동이 실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지역 전기·가스 안전 점검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마을주민 대상 안전도털서비스 시행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한 안전점검 및 봉사활동이 실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옥도면은 지난날 30일 전기 안전공사, 군산소방서, 군산도시가스 3개 기관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도서지역(무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및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주민들에게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전기안전사용 요령 등을 교육하고 노후전기설비에 대해 개·보수 및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군산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군산도시가스에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가스안전사용 요령 등을 교육했다.

도서지역은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으며, 여러가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내 및 교육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해당 마을 주민들이 도시가스 및 전기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화재나 각종 재난 상황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원 옥도면장은 "도서지역은 육지와 다르게 각종 사고 및 재난 상황에 취약하기 때문에 금번 행사에 참여한 3개 기관에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익산으로 오세요”

성당포구 바람개비길 · 용안생태습지 공원 ‘눈치보지마시개 길’ 선정

익산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로 선정되면서 500만 관광객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선정한 반려견 산책로인 ‘눈치보지마시개 길’에 성당포구 바람개비길과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표 관광지가 ‘눈치보지마시개 길’로 선정되며 관광 활성화가 예상된다.

성당포구 바람개비길은 형형색색의 바람개비 수천개가 흙을 추며 방문객을 반겨주는 곳으로 반려견과 함께 걸으며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낭만 여행지다.

바람개비길과 맞닿은 용안생태습지



익산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로 선정되면서 500만 관광객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은 약 67만㎡ 규모로 나비광장, 풍령야광장, 조류전망대 등 다양한 습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고, 느릿한

게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며 반려견과 쉬어갈 수 있는 조망 힐터도 잘 갖춰져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 ‘속도’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전북개발공사가 지난날 27일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환지계획 수립을 위해 집단환지와 일반환지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4월 공람공고와 의견처리 절차를 거쳐 환지계획을 인가했다.

이로써 이르면 다음 달 공사에 착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약 29만㎡ 부지를 주거, 상업, 공공시설 등의 용지로 개발하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환지 방식은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 등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 기간이 다소 길어졌지만 조속한 착공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고



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쾌적한 주거여건 제공과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맞춤형 복지 지원

군산시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해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관내 소외계층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시작했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장강박증, 치매 등으로 물건을 쌓아 둔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독, 정리수납, 도배·장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신동에 거주하는 A씨는 오랜기간 집안 내부를 청소하지 않은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개인위생 및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지난날 30일 복지정책과 직원 및 해신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소·소독 업체의 봉사활동으로 집안 가득 쌓아둔 생활 쓰레기를 청소했으며, 소독 서비스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과 연계 등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석권 복지정책과장은 “봉사단체 등 민간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저장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하수과,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나서

군산시 하수과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개 업체당 동일유형 수의계약을 연 2회 이내로 제한하고, 금액은 연 3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 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 금액 제한이 없지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은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더불어 관내 사업장에서 실제 물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도 연 1회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대학생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군산시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범위를 등록금에서 생활비로 확대 실시하며 학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청년 지원 강화 차원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를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로 확대해 ‘2022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6.2.)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재학(휴학 포함) 중인 대학생으로,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물받은 학자금 및 생활비의 2022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교육지원과에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재(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학생의 대출금 이자액을 확인해 10월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계좌로 지원금액을 상환 처리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